

#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

-『사상계』 여성문학 비평과 여성작가 소설을 중심으로-

김양선\*

## 〈차례〉

1. 문제설정-『사상계』를 젠더화한다는 것(engendering)
2. 『사상계』의 ‘문학’ 기획
3. 『사상계』는 여성문학을 어떻게 배치했나
4. 여성-청춘의 표상과 세대론적 구별짓기,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 소설
5. 결론-여성문학 장의 변화와 『사상계』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 양상을 『사상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상계』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상계』가 195·60년대 지식 및 교양생산의 맥락에서, 그리고 현실참여의 매체로서 ‘문학’을 중시했고, 그것이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들의 작품에도 모종의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정 때문이다. 둘째, 『사상계』가 새로운 세대의 문학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여성작가와 문학 장의 세대교체를 건인해냈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상계』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서지사항 소개 및 분석뿐만 아니라 여성작가 작품에 대한 비평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장 ‘사상계의 문학 기획’에서는 예비 작업으로서 권두언과 문예특집증간호, 문학심포지엄 등의 기획을 중심으로 『사상계』가 당시 순수문학 장과는

\* 한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조교수

다른 사상과 이념 중심의 문학 장 형성에 주력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3장 ‘사상계는 여성문학을 어떻게 배치했나’에서는 여성작가 작품에 대한 월평, 단평류 글에서 여성을 감수성, 섬세함, 내성적과 같은 어휘들로 유평화 하였음을 밝혔다.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남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여긴 것이다. 또한 195·60년대 신진 여성작가군의 등장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4장 ‘여성-청춘의 표상과 세대론적 구별짓기’에서는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 소설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소설들은 공통적으로 여성-청춘을 주체로 설정하였다. 이들은 전후나 4.19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비판적 시선을 유지하였으며, 근대 기획, 자유주의에 대한 갈망, 탈식민 기획과 같은 새로운 인식적 패러다임을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짚는다.

첫째, 『사상계』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전후 불안과 우울, 무기력에 빠진 남성-청춘의 서사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남성들의 각성을 견인한다. 둘째, 여성-청춘의 주체적 시각으로 가부장적 질서 및 구세대의 억압적 질서를 비판하고 자유에의 갈망, 주체적 삶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셋째, 전후의 불안한 지적 토양에서 성장한 기혼여성들이나 미혼여성들은 낭만적 사랑과 그 결실인 결혼 제도에 대한 불신과 환멸, 거부 등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

결론적으로 『사상계』는 195·60년대 현대문학의 특징을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여성’ 관련 문학 담론은 빈약한 ‘비’젠더적 매체였다. 하지만 이 잡지가 문단의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문학 장에 진입하는 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사상계』는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새로운 문학의 영토를 개척한 여성작가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작가들 역시 이 잡지를 통해 글쓰기 주체로서의 욕망을 인정받았고, 여성문학 장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핵심어: 『사상계』, 여성-문학, 사상, 현실비판, 신진 여성작가, 여성-청춘, 여성문학 장

## 1. 문제설정- 『사상계』를 젠더화한다는 것(engendering)

195·60년대 지식 생산과 사회 비판 담론을 선도했던 『사상계』는 문학 장에서도 민족주의, 자유주의, 실존주의, 반공, 현실참여와 같은 문학의 주요 경향들을 선도했다. 『사상계』 문학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최초로 시도한 김건우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사상계』의 문학담론은 일제 하 문화적 민족주의를 계승한 월남지식인 출신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체계로 운영되었다. 또한 동인문학상, 신인문학상 등을 통해 ‘사상’, ‘지성’, ‘이념성’을 주조로 한 문학제도의 정립과 새로운 세대의 창출을 자족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sup>1)</sup>

필자는 『현대문학』과 더불어 195·60년대 문학 장을 주도했던 『사상계』가 문학적 의제 및 교양/지식 담론을 창출하는 메커니즘을 젠더의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사상계』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작품, 여성문학 담론은 당시 여성교양 담론의 대중화를 주도했던 『여원』이나 『여상』과는 다른 지형에 있고, 문학지의 속성상 다양한 작가와 작품군을 포괄했던 『현대문학』과도 다른 지형에 놓여 있다. 더욱이 『사상계』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단편 37편, 장편 1편(그나마 4회를 끝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으로 총 수록편수 431편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동인문학상 수상작가에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여성작가는 박순녀(『외인촌』, 1964.11), 서영은(『교(矯)』, 1968.10) 두 명에 불과하다.<sup>2)</sup> 하지만 이와 같은 소수성 때문에 『사상계』와 여성문학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은 195·60년대 여성문학 장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의미가 있다.

필자가 195·60년대 여성-문학의 배치를 논하면서 『사상계』 여성작가를 대상으로 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서이다. 첫째, 『사상계』가 195·60년대 지식 및 교양생산의 맥락에서, 그리고 현실참여의 매체로서 ‘문학’을 중시했고, 그것이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들의 작품에도 모종의

1)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78-97쪽 참고.

2) 창간 2주년 기념 소설현상모집에 가작 입선한 구혜영까지 합치면 세 명이다.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가정 때문이다. 둘째, 『사상계』가 기존 문학 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의 문학 창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사상계』는 신인문학상, 동인문학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상계』에서 활동한 여성작가의 수나 작품은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여성작가와 문학 장의 세대교체를 견인해냈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이 글은 『사상계』의 여성문학 담론, 넓게는 여성문학/문화/교양의 생성이 지닌 고유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서지사항 소개 및 분석뿐만 아니라 여성작가 작품에 대한 비평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사상계』의 ‘문학’ 기획

『사상계』는 창간 당시부터 교양과 현실참여의 계기로서의 문학 개념 정립에 힘을 썼다. 1955년 2월 권두언(장준하) 『문학의 바른 위치를 위하여』에서는 모방과 추종의 문학이 아닌 “우리 민족의 유산을 근간으로 한” 작품이되 시대적, 인류적 호흡과 성찰을 필요로 하는 문학을 요구하였다. 민족사적 시각과 세계사적 시각의 견비를 강조한 것이다. 1955년 2월호는 위에서 언급한 장준하의 권두언을 필두로 ‘문학특집’호로 묶여 있다.<sup>3)</sup> 1955년 7월 권두언 『문학과 문학인의 권위를 위하여』에서도 문학에 대한

3) ‘문학특집’은 다음과 같은 내용과 필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문학의 현재와 장래 좌담회(참석자: 김팔봉, 백철, 손우성, 이무영, 주요섭, 시: 「탄생」(이희승), 「들국화」(김광섭), 「어머니」(노천명), 「까마귀의 노래」(유치환), 「영상」(조지훈), 「Y라는 부호」(김용호), 「홍수」(송옥), 소설: 「부부」(염상섭), 「숙경의 경우」(이무영), 「인정」(최정희), 「이것이 꿈이라면」(주요섭), 「피의 능선」(박영준). 이외에 같은 호에는 평론으로 백철의 「신세대적인 것과 문학」이 실려 있다. 이 같은 체제는 『사상계』가 발간 초기부터 문학 담론의 창출과 세대론에 관심을 가졌음을 반증한다. 여성작가로는 노천명의 시와 최정희의 소설이 수록되었다.

각별한 관심이 피력되어 있다.

권위 없는 문학과 문학인은 그 존재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못사람의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을 가로채고 경제를 낭비하고 비정(卑情)을 선동하는 잡문에 불과하니 오히려 없느니만 같지 못합니다. 온 겨레가 피로써 싸우고 땀으로 일하는 사이에 종일을 다방에서 담배와 더불어 소일하고 해가 지면 주효에 만취하여 대언장어를 일삼는 자는 이 사회에 해는 줄지언정 결코 이(利)를 줄 수는 없습니다.

위 권두언은 한국문학의 퇴폐적 풍조와 문학인의 비생산적인 삶의 양태를 비판하면서 문학인은 “자기 소업(所業)의 엄숙함을 깊이 통찰하고 미치느바 영향의 지대함을 자각하는 동시에 사회와 민족과 인류에 대한 절실한 책임 위에서 문학활동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라고 하여 문학의 실천성과 윤리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호의 특집은 ‘새로운 세대의 문학’으로서 현상소설모집 입선가작 3편을 수록하였다.<sup>4)</sup>

한편 송옥의 『작가의 형성과 환경』(1957.6)은 지식인 대상 잡지 『사상계』가 교양으로서의 ‘문학’을 개념화하려고 시도했음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그는 문인이 올바른 역사의식과 전통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문인의 교양이란 “인간성의 통일”에 주목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사실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 “인간과 사상에 대한 다대한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소소하게는 “최소한의 어학력”까지 문인이 갖추어야 할 지적 자질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개인적인 자질 외에 작가가 처해있는 ‘문명화된’ 사회 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로 들고 있다. 즉 『사상계』는 문학과 교양, 문인과 교양 간의 관련성을 초기부터 중시하였다.

또한 『사상계』는 기존 문학 장의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세대의 등장

4) 가작 당선 작가는 박경수, 구혜영, 박종인이며, 이 중 구혜영, 박종인이 여성작가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도 했다. 1955년 창간2주년 기념 제1회 현상소설상을 공모하였고,<sup>5)</sup> 같은 해 동인문학상을 신설한다. 또한 1960년 “다가오는 연대의 문학담당자로서의 패기 있는 신인의 등장을 위하여” 신인문학상 제도를 만들었다.<sup>6)</sup>

1960년대 들어 『사상계』는 한편으로는 3회에 걸친 문예증간호(1961년 11월 100호 기념 문예특별증간호, 1962년 11월 문예특별증간호, 1963년 11월 문예특별증간호)를 기획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학심포지엄의 형식으로 한국문학의 쟁점과 성과를 본격적으로 진단하는 기획을 하였다.

100호 기념 특별증간호의 권두언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학이 현실의 앞잡이로서 지조를 팔고 현실을 왜곡하며 통속과 타협의 장거리에 나서기를 원치 않는 내면에 다만 창백한 안색을 짓고 사이버 상아탑에 스스로 유폐되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하면서, “민족문학 수립을 위한 슬기롭고 양심적인 문학에의 헌신자”로서 자신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또한 『사상계』가 『현대문학』과는 다른 이념적 지평에서 한국현대문학 장의 형성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내비친다.

순수문학지를 지향하는 여타의 잡지 못지않게 우리가 한국문단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이바지함이 있었다고 은근히 자부함이 있다면 오로지 우리의 이러한 기원과 이정(裏情)에서였다고 할 것이다. (중략) 그리고 ‘동인문학상’ 및 ‘신인문학상’의 창설로서 우리 문학계에 활기와 신펙(新風)을 불어넣으려 한 노력도 또한 여기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31쪽)

즉 순수문학이 아닌 민족문학이라는 뚜렷한 지향점을 드러내면서, ‘신펙’ 조성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기존 문학 장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1962년 말에 내놓은 두 번째 문예증간호의 권두언에서도

5) 여성작가로는 『사상계』에 가장 많은 소설을 발표한 구혜영은 이 제1회 현상응모작에 단편 『안개는 거치고』가 가작 입선되어 등단한다.

6) 제1회 수상작은 1960년 7월호에 발표된 강용준의 『철조망』이다.

“위대한 문학의 배후에는 언제나 인생과 사회를 향하는 타협 없는 정신이 소재해 있음을 우리는 느낀다. 그것은 현실을 투시하여 조금의 흐림도 없고 지조를 세우는데 조금의 굽힘도 없는 작품창조의 기본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요 오직 이것을 위해서만 내일의 비약을 위한 오늘의 준비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인생과 사회를 향하는 타협 없는 정신”, “현실을 투시”하는 자세는 『사상계』의 문학 장이 지속적으로 추구한 것이다. 1963년 12월 권두언 『현실을 투시하는 내면적 경험의 눈이 아쉽다—다시 문예증간호를 내면서』에서는 3번의 ‘문예증간호’를 냈던 사실을 밝히면서 『사상계』가 “한국문학을 위한 ‘공통의 광장’ 구실을 자칭”하였다고 자부한다. 즉 3회에 걸친 ‘문예증간호’ 기획은 『사상계』가 전후, 특히 4.19 이후 본격적으로 순수, 보수, 탈이념을 대체할 실천, 이념, 현실참여 중심의 ‘새로운’ 현대문학 장 형성을 주도했음을 보여준다.

문학심포지엄의 첫 번째 기획은 1962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된 ‘문학심포지엄-신문학 50년’으로서 시, 소설, 평론, 창작을 망라한 것이었다.<sup>7)</sup> 1965년 2월부터 진행된 ‘문학심포지엄-한국문학의 현 단계’도 위와 같은 기획의 일환이다.<sup>8)</sup> 1965.10월 ‘심포지엄-문학과 현실’은 1960년대 후반 『사상계』의 문학담론이 문학의 현실참여에 정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up>9)</sup>

7) 1962년 5월 좌담회 ‘단절이나 접합이나?—한국 현대시 오십년이 남긴 제 문제’(참석자: 조지훈, 박목월, 김중길, 이어령, 유중호), 1962년 9월 좌담회 ‘소설 50년의 반성과 전망’(참석자: 김동리, 백철, 안수길, 유중호, 장용학, 여석기). 1962년 11월 문예특별증간호에 게재된 일련의 비평(정명환, 『평론가는 이방인인가.』, 이어령, 『한국소설 맹점』, 유중호, 『한국적이라는 것』, 백철, 『세계문학과 한국문학』) 등이 그것이다. 1963년 3월호에는 ‘신문학 50년 평론편’으로 좌담회 ‘이론과 실제의 불협화음—한국 문학평론 반세기의 금석’(참석자: 백철, 유중호, 이어령, 홍사중, 김용권), 백철, 『현대이론을 향해서 반세기』, 이어령, 『오해와 모순의 여울목』이 수록되었다.

8) 김진만, 『우리 문학의 문제-외국문학자의 입장에서』, 서기원, 『현대문학을 향한 과도기적 혼란-한국작가의 입장에서』, 좌담회 ‘우리 문학의 과거와 현재’(사회: 정명환, 참석자: 김진만, 서기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5년 8월(150호) 유중호의 『성장과 심화의 궤적-한국문학 20년』 역시 해방 이후 한국 문학의 계보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와 같은 기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9) 이형기(시인), 『작가와 현실성』, 최인훈(소설가), 『문학활동은 현실비판이다』, 조동일(문학평론가), 『순수문학의 한계와 참여』, 1965년 12월(154호) ‘1965년도 문단총

『사상계』는 1960년대 중후반 이후 잦은 정간과 지면 축소로 인해 문학 섹션 역시 줄어들었지만 1970년대 문학 장을 이끌 신세대 비평가와 작가들을 배출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1968년 2월(178호)의 ‘문학의 현실참여를 중심으로’에 실린 선우휘와 백낙청의 글, 김현의 평론 『허무주의와 그 극복-동인문학상 수상작가를 중심으로 한 시론』(1968.2), 김병익의 글이 단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사상계』의 문학섹션이 지향했던 이념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이나 관련 비평에서도 드러나는가?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민족, 민주, 세계성, 혁명, 반공 등을 교양과 지식, 문화와 문학의 핵심주제어로 삼았던 『사상계』는 여성에 대해서는 ‘비’젠더적 관점을 고수했다. 여성 관련 기사나 논문, 평론 류의 글로는 이효재의 『여성의 사회진출-안방살이에서 사회 전역으로』(152호, 1965.10), 당시 『채털리 부인의 사랑』으로 촉발된 성문학 시비론, 좌담회 ‘가정생활의 현대화’(1960.4, (참석자: 이만갑(사회), 최이순, 정태섭, 이효재)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사상계』는 파편적으로나마 전후 문학 장에 새로 등장한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을 담론화 했고, 특히 구혜영, 박순녀와 같이 『사상계』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에게 지면을 안배하기도 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한다.

### 3. 『사상계』는 여성문학을 어떻게 배치했나

195·60년대 문학 장과 지식 장에서 고유한 색채(가령 작가군으로는 월남 문인, 창작경향으로는 사상과 이념성 등)를 드러냈던 『사상계』에서 여성작가들의 창작활동이나 작품 경향은 어떤 경향을 드러냈는가? 그리고 여성작가나 문학에 대한 담론들은 어떤 양상을 띠었는가? 먼저 『사상



계』 수록 여성작가 소설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 소설

- 1955년 2월, 최정희 「인정」  
 1955년 7월, 구혜영 「안개는 거치고」  
 1956년 6월, 구혜영 「상록의 지층」  
 1956년 7월, 강경애 「마약」(재수록)  
 1957년 6월, 전숙희 「귀로」  
 1958년 8월, 한말숙 「낙루 부근」  
 1958년 9월, 한무숙 「그대로의 잠을」  
 1958년 10월, 손소희 「어둠 속에서」  
 1959년 8월, 정연희 「한 뺨의 땅」  
 1959년 9월, 한말숙 「장마」, 구혜영 「암초」  
 1959년 11월, 손소희 「태풍」  
 1959년 12월, 박경리 「해동여관의 미나」  
 1960년 1월, 강신재 「젊은 느티나무」  
     5월, 정연희 「어느 하늘 밑」  
     8-12월, 최정희 『인간사』  
 1961년 8월, 손소희 「다리를 건널 때」  
     11월, 100호 기념 문예특별증간호, 한무숙 「대열 속에서」, 구혜영 「메기의 추억」  
 1962년 11월, 한무숙 「배역」  
     11월 문예특별증간호, 강신재 「황량한 날의 동화」,  
     박순녀 「아이러브유」  
 1964년 7월, 한말숙 「이 하늘밑」, 김의정 「사랑의 찬가」  
     11월, 박순녀 「외인촌입구」(신인문학상 입선 추천작)  
     12월, 박경리, 「풍경(B)」  
 1965년 3월, 박순녀 「임금의 귀」

- 11월, 박화성 「팔전구기(八顛九起)」, 박경리 「하루」  
 12월, 강신재 「강물이 있는 풍경」  
 1966년 4월, 손소희 「그 자매」  
 10월, 박순녀 「단절」  
 1967년 6월, 구혜영 「어떤 평일」  
 1968년 5월, 손소희 「성곽 밖의 봄」  
 6월, 구혜영 「은빛갈의 작은 새」, 손장순 「우울한 한강」  
 1968년 10월, 서영은 「교(矯)」(제10회 사상계 신인상 입선작)  
 1969년 8월, 구혜영 「명희」

수록 편수만 놓고 보면 구혜영 7편(1955.7~1969.8), 손소희 5편(1958.10~1968.5), 박순녀 4편(1962.11~1966.10), 정연희 3편(1959.8~1968.7), 강신재 3편(1959.12~1965.11), 박경리 3편(1959.12~1965.11), 한말숙 3편(1958.8~1964.7), 한무숙 3편(1958.12~1962.11), 최정희 2편(장편 포함) 순이다. 그 외 1편만 발표한 작가들로 서영은, 전숙희, 박화성, 김의정, 손장순이 있다. 이 중 구혜영과 박순녀는 『사상계』 신인문학상 추천 작가로서 당대 매체들이 자 매체 추천 작가들을 주로 배치한 전략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사상계』는 『현대문학』과는 달리 여성작가들만 묶어 특집으로 구성하는 편집전략을 취하지는 않았다. 다만 두 번에 걸친 ‘문예특별증간호’(1961년 11월, 1962년 11월)에 한무숙 「대열 속에서」, 구혜영 「메기의 추억」, 강신재 「황량한 날의 동화」, 박순녀 「아이러브유」를 수록하여 신진여류작가에 주요 지면을 안배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한편 『사상계』에 수록된 여성문학 관련 담론은 그 수를 헤아릴 정도로 적다. 따라서 본격적인 평론 외에도 월평, \*\*년 소설평, \*\*년 상반기 평 등의 단평, 좌담회, 작가론 등을 포괄하여 여성문학 및 여성작가를 바라보는 당대의 시각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sup>10)</sup> 『사상계』에 실린

10) 월평, 상반기평, \*\*년의 평 등 창작평의 형식에서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이 부분적으로나마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다. 여성작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기에 아래 비

포스트(post) 최정희, 모운숙, 노천명 세대 여성작가들은 일제 말기와 해방기에 등단한 손소희, 임옥인, 강신재, 한무숙부터 전후에 등단한 박경리, 한말숙, 구혜영, 손장순, 김의정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두터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향도 다양해졌다. 이 신진여성작가들이 어떻게 그들의 ‘새로움’을 통해 여성문학 장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기존 문학 장은 이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성문학과 여성작가 관련 담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 문학 관련 담론』

1955년 9월, 손우성 「여류와 신인작품의 비중」,

1960년 5월, 홍사중 「강신재 저, ‘여정(旅情)’」(서평)

1960년 10월, 좌담회 「소설가의 ‘애(哀)’와 ‘환(歡)’」,

참석자: 김팔봉, 안수길, 오영수, 강신재, 여석기

1965년 4월, 정한모 「인고와 아픔의 계보-문학작품에서 본 한국의 여인상」,

1966년 3월, 정명환 「폐쇄된 사회의 문학-박경리론」,

손우성의 「여류와 신인 작품의 비중-7, 8월 창작평」은 월평이다. 강신재의 「포말」, 구혜영의 「안개는 거치고」를 감수성이 풍부한, 현대감각을 짜 넣은 작품으로 호평하고, 손소희의 「새치기」, 임옥인의 「순정이라는 것」, 한무숙의 「월훈」을 개성 있는 작품으로 거론한다. 필자는 한무숙과 박경리, 두 작가를 장래성이 보이는 신인으로 거론하며, “여성들의 예민하고도 섬미한 감수성에 의한 인생해석이 현대지성의 분석적 긴장미에 혼 혼한 체온을 주어서 생명이 직접 말하는 정신의 자량을 배급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요컨대 손우성은 ‘예민하고도 섬미한 감수성’을 여성작가 고유의 특질로 규정한다.

여류작가와 신인군의 현문단에서의 비중은 거의 반량(半量)을 차지하고 질적으로도 점점 더 무게를 가지게 되었으며 매월의 추천작품은 완전히 신춘당선작의 수준에 따라가고 있음은 문단 진운의 현저한 표징으로서 경하할 일이다. 문단 전체로서의 경향은 작품의 구상을 흥미있게 꾸미려는 기교적 의욕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생명의 내성에서 인생의 향로를 찾으려는 잠재의욕은 심리분석의 표현법을 무의식중에 쫓고 있는 것 같다.(193쪽)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 손우성은 당시 문학계의 특성으로 여류작가와 신인군의 등장, 작품의 내면화를 들고 있다. 구혜영, 박경리, 한무숙은 기교보다는 인간의 심리를 깊이 있게 그린 대표적인 신인이자 여류작가로 호명된다. 이 글은 여성문학 장의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을 당시 문학 장이 추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령의 「1957년의 작가들」(1958.1)에서는 현대 사회의 풍경화를 그린 작품 중의 하나로 박경리의 「불신시대」를 든다. “여류다움에 섬세한 텃취로 이 시대의 파노라마를 서경(敘景)한 씨의 작품은 현실을 내관(內觀)한 한쪽의 특색있는 가작”이라고 평한다. 하지만 좀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의 풍경을 그리지 못 한 “미완성 풍경화”라고 평가한다. 같은 글에서 한무숙의 「감정이 있는 심연」에 대해 “성문체에 천착하고 있는 작품”의 예로 든다. 다만 여주인공의 섹슈얼 콤플렉스를 가족적 정황에서 온 것으로 그리고 있어서 현대문명 비판의 맥락, 사회적 측면에서 그리지 못 한 것을 한계로 지적한다. 독특한 점은 1957년 소설계 전반을 평가하면서 대부분의 작품이 현실 비판이 아닌 불평에 머물렀으며, “산문정신은 대하처럼 흐르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 작가들의 대부분이 “도량물처럼 흘러가는 여성적이며 장난감 같은 모형예술에서 끝난 셈”이라고 진단하는 대목이다. 산문정신의 실패를 ‘여성적’인 것으로 의미화하고 있는 셈이다.<sup>11)</sup>

11) 이어령은 「1958년의 소설총평」(1958.12)에서도 여성작가의 작품 중 한말숙의 「노파와 고양이」, 박경리의 「벽지(僻地)」를 거론한 바 있다.

백철은 『상반기 신구(新舊)의 창작계-월간지의 작품을 중심』(1957.7)에서 신진작가의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 박경리의 『전도』를 든다. “내면적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내성적인 소극적인 작품수법을 쓰면서 이만치 심리적인 전환과 굴곡, 의지의 대결 등을 위기로 설정하여 끝까지 끌고 들어간 수법”을 높이 평가한다. 김동리의 『1959년의 소설』(1960.1)은 순문예지와 종합지를 통해 발표된 장편소설을 언급하면서 손소희의 『태양의 계곡』(현대문학)과 박경리의 『표류도』(현대문학)을 언급한다. 『태양의 계곡』에 대해서는 고전적인 여성과 행동적인 여성의 전형적 대비, 심리묘사의 박진성과 전아한 문장이 반영되었지만 시대적, 사회적 의의 설정이 부족한 점을 비판한다. 박경리의 『표류도』에 대해서는 “인물처리와 사건 전개에 있어 활발한 극적 변화”를 포착해 낸 점, 특히 문단에 등장한 지 수 삼 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류작가로서는 이례적인 대담함을 고평하면서도 남성인물을 그리는 데 있어서의 주저함이 “성별의식에서 오는 수줍음”이라고 추측한다. 단편소설로는 박경리 『해동여관의 미나』, 한말숙의 『파충류의 가무』, 『Q호텔』, 『장마』, 구혜영의 『백화의 고독』, 『암초』를 든다. 이어령과 같은 신진평론가뿐만 아니라 중립적 입장의 백철, 보수적 입장의 김동리까지 당대 주목할 만한 여성작가로 전후에 등단한 박경리와 한말숙에 주목하고, 이들의 작품을 ‘여성적’, ‘내성적인’ 것으로 젠더화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문학 장의 세대교체에 대해 일정 정도의 담론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위 월평, 단평류 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상계』의 문학비평담론을 주도한 남성 필자들은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 감수성, 섬세함, 내성적과 같은 어휘들로 유평화 하였다. 이와 같은 어휘들이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남성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인식하고 지칭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또한 남성/여성, 이성/감성의 이분법에 기반한 전형적인 이분법적 사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내면성과 감수성은 전후 여성지식의 고유한 작품세계로 볼 여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그렇다면 4.19 이후는 어떠한가? 혹은 1960년대라는 새로운 세기는 문학 장, 여성작가와 작품에 대한 비평에 어떻게 개입했는가? 1960년대 이후 여성작가와 문학에 대한 언급은 주로 월평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소설 월평의 경우 유종호, 홍사중, 정명환이 주요 필진을 담당했는데, 월평의 특성상 작품에 대한 간략한 리뷰(review)에 그친 게 대부분이다. 홍사중의 『이 무더운 날의 파란기(破閑記)들』(1964.8)에서는 김의정의 『사랑의 찬가』가 간략하게 언급되었다. 주인공 여성이 얼굴의 흉터로 인한 소극성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낭만적 사랑과 예술적 재능을 함께 성취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소설을 두고 홍사중은 “여성작가 특유의 섬세한 눈초리가 미묘한 심리의 그늘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구적인 강렬한 타치가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그는 『묵시록의 세대』(1963.12)에서 강신재의 『그들의 행진』과 한무숙의 『유수암』을 언급하면서 특히 『유수암』을 “1963년 문단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고평하였다. 이호철의 『작가자세의 네 가지 유형』(1965.4)에서는 박순녀의 『임금의 귀』를 심경소설로 분류하면서 “비비드한 묘사와 감각적 문체”에 주목하였다. 한편 유종호는 한국문학 20년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글 『성장과 심화의 궤적-한국문학 20년』(1965.8)에서 전후소설(전쟁소설)의 대표적인 예로 “전쟁의 소용돌이가 일으킨 피해의 부피를 중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을 든다. 또한 “저마다의 개성적 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강신재, 한무숙, 정연희 등의 여류군”을 언급한다. 이상의 단편적인 작품평이나 유종호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방 후 소설문학의 흐름에서 신진 여성작가군의 등장이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작가들 나름의 개성적 세계를 구축하였으며 “여성작가 특유의 심리묘사”와 같은 여성성을 내면성 내지 심리와 연관 짓는 비평적 클리셰가 여전히 지배적인 비평담론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명환의 『폐쇄된 사회의 문학-박경리 씨의 세 작품을 중심으로』(157호, 1966.3)는 본격적인 박경리론이라는 의미 외에도 여성문학, 여성작가

와 관련하여 흥미 있는 시각을 보여준다. 프랑스 문학전공자로서의 지적 배경에 기대어 서구 근대문학 전통에서 소설은 여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가령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추상적이며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주로 소설을 쓰는 일이 많다’, ‘문학적인 직업 중에서 가장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소설가이다’), 내용적으로도 여성작가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풍부한 정서”와 같은 독특한 영역이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명환은 한국문학은 남성작가가 남겨 놓은 걸작이 부족한 까닭에, 즉 “지성적 작품이 매우 빈약한” 까닭에 그와 반대로 여성작가가 ‘감성적 영토’를 고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도리어 우리나라의 여류작가는 될 수 있다면 남성에게 없는 여성적 감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남성과 똑 같은 자격으로 매우 지성적인 작품을 쓸 무한한 가능성과 또 그런 작품을 써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박경리 씨는 분명히 이 가능성과 사명을 의식하고 있고 그 의욕의 심화와 더불어 자라나온 아마도 유일한 여류작가이다. 왜냐하면 『표류도』,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의 세 작품은 그녀의 세계가 개인으로부터 집단으로, 정적 분위기로부터 사회적 드라마로 발전해 나가는 궤적을 그려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283~284쪽)

정명환의 글은 본격적인 여성문학론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서구문학과 한국문학의 차이에 근거해서, 한국의 여성문학이 여성적 감성과 남성적 지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하는 특수한 조건에 놓여 있음을 간파하였다.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상투적인 젠더 이분법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감성과 지성의 겸비’, 그 중에서도 ‘지성적 작품’ 쓰기는 박경리 세대 여성작가들이 전 세대 여성작가들과 구별되는, 그리고 이 여성작가들이 지향했던 특성으로 볼 여지도 있다.

#### 4. 여성-청춘의 표상과 세대론적 구별짓기,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 소설

앞서 필자는 『사상계』가 여성작가들의 세대교체 양상을 보여준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최정희로부터 이 장을 시작하고자 한다. 최정희는 『사상계』에 여성작가로는 처음으로 단편 「인정」을 발표했고, 서북출신 문인으로서 『사상계』 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1964년 여원사가 주관한 제1회 ‘한국여류문학상’ 당선작인 『인간사』를 『사상계』에 연재한다. 그런데 정확한 서지 사항을 보면 『인간사』는 1960년 8월부터 12월까지 『사상계』에 연재되었고, 한동안 중단되었다가 1963년 11월부터 1964년 4월까지 『신사조』에서 연재가 마무리 되었다. 김복순에 따르면 『사상계』의 연재 중단과 관련하여 『사상계』의 일방적인 마무리 요구에 대한 작가의 항의가 있었고, 이에 잡지사측에서는 원고가 수차례 연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하였다고 한다.<sup>12)</sup> 김복순은 연재가 중단된 이유가 『인간사』의 전반부 1부부터 3부까지 주내용이 일제 시대 학생운동 주동자였던 주인공 강문오의 연애 행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탓에 당시 『사상계』의 이념이랄지, 4.19의 시대정신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이 같은 정황은 역설적으로 『사상계』의 이념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자, 월남문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구세대적 정신이나 감수성으로는 『사상계』의 문학 장에 안착하기 힘들었음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포스트 최정희 세대 여성작가들 중 『사상계』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거나 작품을 발표한 신진여성작가들은 당대 남성작가들과 다르면서, 동시에 전 세대 여성작가들과도 다른 뚜렷한 경향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195·60년대 여성문학 장의 세대교체와 관련이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구혜영, 박순녀, 박경리,

12) 자세한 경위는 김복순의 「전향자의 역사 다시 쓰기-최정희의 『인간사』론」,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235쪽, 주 24)를 참고할 것.



한말숙 등 신진여성작가들의 작품이 지닌 공통적 특성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sup>13)</sup>

무엇보다도 이들의 소설은 여성-청춘<sup>14)</sup>을 주제로 설정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 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여학생, 교사, 소설가, 잡지사나 출판사에서 일하는 지식인 여성이다. 대부분 월남이나 한국전쟁을 경험하

13) 『사상계』에 대한 여성문학적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렇지만 이 드문 연구들은 『사상계』 신진 여성작가들의 새로운 경향성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규명하고 있어 본고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정혜영의 『『사상계』 등단 신인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11)은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신인여성작가들이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규명하였다. 전후 『사상계』 출신 여성작가들이 '무력한 지식인-청년-남성' 표상을 통해 당대 현실의 위기를 인식했고, 이 위기를 넘어설 '대안청년'으로서 여성을 형상화하였다고 분석한다. 안미영은 「계몽성과 감성이 착종된 세대의 의의와 한계」(『국어국문학』 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에서 구혜영의 작품세계를 집중 분석하였다. 그는 구혜영 초기 소설의 주제가 식민지 과거의 잔재, 한국전쟁의 경험, 전후현실의 재건, 감성적 인물을 통한 삶의 구원 모색 등으로서 전후 한국사회를 조망하였다고 보았다.(427쪽) 또한 구혜영이 전후 현실 재건을 선도했던 지식인 공론의 장 『사상계』를 통해 등단했다는 사실이 초기 소설의 계몽성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였다.(432쪽) 특히 안미영은 구혜영 초기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을 '감성적(sensitive)' 인물이라 명명하는데 이는 『사상계』에 포진했던 신진 여성작가 작품들에 두루 나타나는 경향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 외 박순녀와 관련한 연구로는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박순녀, 손장순, 박시정」(『현대문학의 연구』 29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06)과 김윤선, 「월남 여성작가 박순녀의 체험과 문학」(『한국학연구』 33집, 한국학연구소, 2010)이 있다.

14)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미혼여성이나 젊은 여성이라는 말 대신 여성-청춘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전후와 4.19에 대한 세대론적 반응과 젠더적 반응을 동시에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박경리 전후 소설을 대상으로 한 그 글에서는 지식인 여성이 전쟁을 해부하고 내성화된 방식으로 전후 현실을 성찰하면서, 전쟁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낭만적 사랑으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 여성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불안이나 우울증은 전쟁의 장기 지속적 영향력에 대한 애도와 저항의 방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은 이런 특성과도 다소 다르다. 이들은 전후 현실이나 가부장적 질서에 '불안'이나 '우울증'보다는 '비판적 거리 취하기'나 '저항'의 방식으로 반응한다.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141쪽 참고.

고, 그런 경험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전후’ 세대의 의식의 자장 안에 놓여 있다. 4.19를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논의되던 때에 자유로운 개인을 열망했던 여성지식인들은 당대 여성을 규율하던 지배담론에 흡수되면서 가정의 근대화를 담당할 근대적 주체-현모양처로서 재규정<sup>15)</sup>되었다. 하지만 『사상계』 여성작가들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청춘의 표상은 이와 같이 지배담론이 규정한 여성의 틀에서 벗어나 있다. 기혼여성보다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여성이고, 대부분 전쟁을 전후하여 가족의 죽음을 경험했거나 단독으로 월남하여 기존의 가족제도에 포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가족제도 바깥, 혹은 가족제도에 포섭되지 않은 인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전후나 4.19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비판적 시선을 유지하였으며, 근대 기획, 자유주의에 대한 갈망, 탈식민 기획과 같은 새로운 인식적 패러다임을 여성의 시각으로 다시 짚는다.

그 패러다임은 첫째, 『사상계』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전후 불안과 우울, 무기력에 빠진 남성-청춘의 서사에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는 점, 이들의 각성을 오히려 견인한다는 점이다. 둘째, 여성-청춘의 주체적 시각으로 가부장적 질서 및 구세대의 억압적 질서를 비판하고 자유에의 갈망, 주체적 삶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이다. 셋째, ‘젊은’, 그리고 전후의 불안한 지적 토양에서 성장한 기혼여성들은 낭만적 사랑과 그 결실인 결혼 제도에 대한 불신과 환멸, 거부 등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려고 한다는 점이다.

첫째, 불안과 우울, 무기력에 빠진 남성-청춘의 모습을 비판하는 한편 이들의 각성과 성장을 추동하는 작품군에 드는 것은 구혜영 「안개는 거치고」, 정연희 「한 뼉의 땅」, 한무숙 「배역」, 한말숙 「이 하늘 밑」, 박순녀 「단절」, 「외인촌 입구」이다.

「안개는 거치고」에서 진수는 전쟁의 후유증 때문에 무위의 나날을 보

15) 이선미, 위의 논문, 420쪽.

내는, 전후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기력한 남성-청춘이다. 진수는 수옥과 약혼한 사이이지만 이 역시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은 아니었고, 친구에게 직업전환 제의를 받고 갈등하던 중, 수옥이 현실적인 자세를 취하자 환멸을 느낀다. 이에 반해, 최문경은 전후 투철한 생활의욕 없이 살아가던 진수에게 ‘올바른 지식인’으로서 살아갈 의욕을 북돋아주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진수는 최문경의 “자신의 생각을 주저 없이 모조리 다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자유성”(52면)을 접하면서 자신의 “불규칙하고 안이한 생활 체제를 재비판할 기력과 필연”을 느낀다. 그런데 최문경이 ‘병든 정신을 치료 지양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서 위기에 처한 남성(성)을 위안하는 구원의 여성상은 아니다. 진수와 강순옥, 문경의 관계를 관찰, 판단하는 소설의 초점화자 이순우에 따르면 문경은 “생명력의 힘, 젊음의 힘, 요즘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경박과 허영을 청산하고 나선 좀더 다른 표준형”에 해당한다. 실제로 문경은 남대문 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 근처에 있는 진수의 하숙집에서 짐을 꾸려 나오는 등 자신의 주체적 판단에 근거해 행동한다. 진수가 문경의 진심을 알게 된 후 “어쩔 수 없이 그 여자 것이 되어 버린 자신”을 생각한다는 것은 남성-능동적/여성-수동적이라는 젠더 위계를 역전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소설은 삶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 하고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지식인 남성의 깨달음의 서사이자, 이 남성의 깨달음을 추동하는 새로운 여성-청춘의 서사로 볼 수 있다.

박순녀의 『단절』에서 주인공 동수는 “6.25와 더불어 모 대학 병원의 연구실을 뛰쳐 나와 자진입대”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연장시키려고 연구하여 온 모든 임상의학이 대량살육을 목적으로 벌어지는 무자비한 현대전 앞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상황에서 절망과 무력감을 느낀다. 전후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전후 서울은 “금력과 권력만이 판을 치고 개기름이 흐르는 자와 배가 불룩 나온 자의 얼굴에만 즐기찬 정력이 넘쳐” 흐르는 제도적, 윤리적으로 아노미 상태이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친구가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시골로 가지만 그곳 역시 가난

과 야욕과 절도와 강도가 판치는 ‘도회지의 변형’이 되어 있다. 여기서도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 하고 은행나무나 부엉이같이 사물화된 대상과만 소통한다. 윤주는 이처럼 절망이나 무력감에 빠진 동수의 윤리의식을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저는 선생님을 대해 오면서 줄곧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치르고 온 전쟁이며 이 사회적인 모순. 그것들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혀 왔어요. 그리고 보면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이란 결국, 그런 것과 맞서서 싸울 목숨과도 맞바꾸는 바로 의지력 같은 것이 아닐까요? 말하자면 허무 속에서도 인생을 몇 번이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력.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에게 바란 제가 잘못이었을까요?(307쪽)

그녀는 산다는 일의 허망함, 격렬한 분노와 같은 복합적 감정에 시달리면서도 “몇 달 동안의 동수와의 접촉이라는 것도 결국 몸으로 환원되는 패션 외의 아무 것”도 아니라는 자기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그녀는 허무에 빠진 동수에게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의지력’을 가지도록 추동한다. 하지만 윤주는 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쇼크사’하는데, 이는 목숨과도 맞바꾸는 의지력이 폭력적, 남성적인 현실 논리 앞에서 좌절되었음을 뜻한다. 그녀의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수가 현재의 지지부진했던 갈등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소설 말미에서 동수가 마을을 떠나기로 하고 자신이 길들여 키우던 부엉이를 죽이는 상징적 행위는 이 전후 남성 지식인이 미미하나마 세상과 현실에 투신하고자 하는 시도라 볼 수 있다.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한 한국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 하는 남성-청춘의 표상은 정연희의 「한 뺨의 땅」, 한무숙의 「배역」, 한말숙의 「이 하늘 밑」에도 나온다.

「배역」은 자살한 오빠의 친구들과 함께 모종의 공동체에 살게 된 ‘경연’의 시선으로 방황하는 남성-청춘들을 관찰한다. 이들은 시인, 화가, 번

역가 등으로 경제적으로 주류에 편입되지 못 한 데서 비롯된 ‘패잔자’ 의식을 갖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즐거움과 긍지로 여기는 젊은 세대의 의식을 보여준다. 이 중 의환은 특정한 직업도 수입도 없는 식객이지만 이 청년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다. 경연은 “개성적인 진실만을 쫓으려는 삶”에 매혹되지만 오히려 실제로 연애 관계에서는 ‘부자유’를 느낀다. 사실 이 부자유는 감정은 개성과 자유를 쫓는 듯 했던 그가 결국은 약혼을 하면서 주류가 되려고 하는 이율배반성을 내보였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경연은 오히려 의환의 약혼 소식을 듣고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여긴다. 이 작품에서도 남성들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위치에서 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경연은 일시적인 낭만적 연애의 종결을 다른 ‘무엇인가의 시작’으로 여기는 내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성으로 재현된다.

한말숙의 『이 하늘 밑』에 등장하는 일군의 지식인, 남성-청춘들은 4.19와 5.16 이후 한국 사회의 절망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미국을 동경하고 지향한다. 특히 이 작품은 화가 경호, 시인 주환, 바이올린 연주가 용석, 물리학자 병욱 등 한국 사회의 인텔리겐차들이 미국 T재단의 지원을 받아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지만 합법적, 민주적인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한국 사회의 시스템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을 고발하고 있다. 남성-청춘들을 무기력한 상태로 몰고 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은 미국인 벤의 입을 통해 폭로된다.

“다시는 여기(한국) 올 생각을 마십시오. 여기는 적어도 예술을 연마할 데가 아닙니다. 나는 여기 꼭 4년1개월 있는 셈입니다. 4.19도 보고 5.16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올 3월부터는 데모도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날마다 신문에 나는 가지가지 비법적인 사건도 압니다. 물가는 오르고 생활고가 점점 심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 김, 달아나십시오. 당신이 여기 있다고 이 나라가 당장 더 잘 될리 있습니까? 달아나십시오. 예술가에게는 예술이 고향입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내 예술을 이해해 주고 사랑하는 곳. 거

기가 고향입니다.”

용석의 재능을 알아본 벤의 이 같은 발언은 타자의 시선에 비친 한국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이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은 불안과 우울, 무기력에 빠진 남성-청춘의 모습이 전후, 4.19와 5.16으로 이어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안정성과 불안한 삶에 기인한 것임을 드러낸다.<sup>16)</sup> 정연희와 한말숙의 소설이 히스테릭하거나 불안한 남성-청춘의 모습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면, 구혜영과 박순녀의 소설은 여성 특유의 민감성과 지적 관찰로 남성(성)의 위기를 해부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데서 다소 차이가 있다.

두 번째, 독립적인 여성-청춘을 제시하는 작품군에는 한말숙 「낙루부근」, 구혜영 「암초」, 박순녀 「임금의 귀」, 「아이러브유」, 「외인촌입구」가 있다. 이들은 “나는 누구에게도 아무 것에도 속할 수 없는 것”(한말숙 「낙루부근」)이라는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

구혜영의 「암초(暗礁)」에서는 연애에서도 자기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신세대 여성을 통해 전후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신문사 편집부에 근무하는 권태악은 자신이 주례를 섰던 편집부 기자가 스캔들을 일으키자 곧바로 해임할 정도로 전후 혼란스런 남녀관계에 대해 혐오감을 지니고 있고, 사회 질서와 도덕을 중시한다. 그런데 권태악의 제자인 의정이가 약혼자를 두고 알코올 중독자인 유부남을 사랑하면서 자신이 믿

16) 정혜경은 전후 『사상계』 출신 여성작가들이 ‘무력한 지식인-청년-남성’ 표상과 이들의 ‘수난사’로 당대 현실의 위기를 인식하였다고 분석한다. 또한 생활인의 감각과 경험적으로 터득한 지성을 갖춘 지식인-청년-여성은 ‘대안청년’으로서 남성(성)의 위기를 탈출할 가능성을 모색하였다고 평가한다. 필자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 동의한다. 다만 『사상계』를 통해 등단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대상 작품이 박순녀와 구혜영에 한정되어 있는 점,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내거나 저항하는 또 다른 경향에 대해서 다루지 않은 점에서 『사상계』 수록 여성작가 소설의 경향 전체를 아우르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정혜경, 앞의 논문, 588쪽, 604쪽 참고.

었던 세계관에 균열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그는 의정에게 사무실 일을 보게 하여 그녀가 일탈하지 못 하도록 막으려 하지만 의정은 “상식적인 실사회적 법규에 저항”하고, “분방한 본능”에 충실하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떠난다. 이 작품은 기존 사회 질서와 윤리를 유지하려는 구세대와 연애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신세대 사이의 갈등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의정은 어찌 보면 전후 한국 사회에서 물질적 욕망과 아메리카니즘에 경도된 부박한 여성으로 호명되었던 아프레겔로 여겨질 법도 하다. 하지만 의정은 열정적 사랑이 권태악으로 대표되는 전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저항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권태악이 전후 가치관의 혼란으로 인해 남녀관계가 문란해졌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혐오감, 감금, 해고 등 강력한 금지조치를 취하는 데 반해 의정은 이 금지를 명쾌하게 뛰어 넘는다. 전후 남성작가들의 작품에서 비슷한 유형의 여성들이 낭만적 연애의 좌절, 혹은 이에 비근하는 처벌을 당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후 여성작가들이 세대적, 젠더적으로 다른 서사를 지향했음을 알 수 있다.

박순녀는 『사상계』에 발표된 일련의 소설 『아이러브유』, 『외인촌입구』, 『임금의 귀』를 통해 월남 여성 지식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들이 한국 사회의 식민 현실(일제 말기의 식민 현실, 전후 미군 점령에 따른 식민(후기) 현실)에 대해 어떻게 반응/대응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그렸다.<sup>17)</sup> 『아이러브유』(1962.11)는 일제 말기 함흥의 여학교를 배경으로 식민 권력의 일상 통치가 여성(소녀)에게 어떻게 행사되는지, 그리고 이 여성(소

17) 김양선은 박순녀의 『아이러브유』, 『외인촌입구』, 『어떤 파리』가 월남한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체험이 투영된 작품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월남한 지식인 여성(혹은 월남 직전 여학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적 연관성이랄지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작가의 체험으로 환원하는 데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월남한 여성으로서 가지게 된 주변부적 정체성, 소녀 혹은 젊은 여성이라는 세대적 정체성, 지식인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이 세 축이 상호작용하면서 식민, 후기 식민 상황에 대한 젠더적 접근이 가능했다고 본다.

김양선, 앞의 논문, 239쪽 참고.

녀)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는지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은 신발이나 치마 길이 등 세세한 의복에 대한 통제나 근로동원과 같은 일상적 차원에서부터 적십자 간호원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자 불량인이자 비국민으로 낙인찍는 정치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소녀들의 몸에 가해지는 통제를 비판하고, 소녀들이 여기에 감성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주인공 명화는 태평양 전쟁 당시 여학생에게까지 근로동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지나가는 남학생에게 장난스럽게 ‘아이러브유’라고 말을 건넬 만큼 피식민인으로서의 자각이 없던 여학생이다. 하지만 그런 자신의 행위를 두고 ‘불량’, ‘창녀’, ‘황국처녀로서의 자격 없음’과 같은 레페르가 붙고 처벌이 내려지자 “부당한 것을 억지로 참다가 내 마음이 횡포해지는 순간에 보기 싫게 밀려 나오는 웃음”(366쪽)과 같은 내면적 저항심리가 짝트게 된다. 게다가 모성마저 포기한 채 적십자 간호원으로 동원되어 나가는 여성을 목격한 후 “나는 내가 아니,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한 소녀로 태어난 나의 환경이 운명적으로 너무나도 불순하다는 것을 비로소 느끼게 된 것이다. 그것은, 처음 멘스가 있던 날의 『여자』에 대한 증오라 할까, 경악이라 할까”라는, 민족적, 성적, 연령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자신을 알게 된다.

앞서 ‘아이러브유’라는 장난스러운 발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주의적, 소극적 반발이라면, 동원을 거부하는 행위는 피식민자 여성으로서의 주어진 위치성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명화는 적십자 간호원 동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고, 한 달 후 해방이 되자 친구 봉숙과 함께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려고 월남한다. 해방은 이 피식민지 소녀에게 자기 미래를 위해 소녀의 몸으로 월남할 수 있는 주체성과 (조선인에게 호의적이었던) 일본인 아마끼 선생으로부터 ‘아이러브유’라는 민족적, 성적 경계를 넘어서 연대를 모색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되돌려 받는 계기가 된다. 이 작품은 식민지 국민의 일원으로 수렴되지 않는 감성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을 모색하는 서사이자, 한국 여성들이 식민지 시기에 겪어야 했던 성적, 민족적 차별의 경험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탈식민의 서사이기도 하다.<sup>18)</sup>

『외인촌입구』(1964.11)는 여성지식인이 바라본 전후 한국사회의 (후기) 식민적 현실을 여성주체의 입과 경험을 통해 비판하였다. 이 작품은 전후 미국문화나 미군에 의한 한국의 식민 상황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다. 작품 서두에서 외인촌은 “한 구역을 점령한 철조망, 한국인과의 격리를 시도한 꽤 넓은 공지, 패스पोर्ट를 제시하고서야 들어서는” 곳으로 묘사된다. 외인촌은 점령과 격리의 공간, 한국 땅에 있지만 해당 국가의 제도와 문화, 일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질적 공간이다. 이 소설에서는 나, 김순배, 찬우 등 대학생들이 이 이질적인 공간에서 하우스보이, 하우스걸로 차별을 경험하는 것을 그린다. 미군장교인 커널은 김순배에게 미국행을 꿈꾸는 한국의 대학생들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흑인이거나 푸에르토리코인과 결혼하면 된다고 조롱한다. 백인/흑인, 백인/한국인 간의 인종적 위계질서가 외인촌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김순배는 한때 정전운동을 했던 이념형 인물이지만 지금은 무기력한 비굴을 내면화한 채 미국의 신식민 질서에 순응한다. 같은 대학을 다니는 나와 찬우는 김순배와는 달리 외인촌의 권력질서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하려 하지만 미군의 물건을 빼돌린 도둑으로 오인받아 내쫓긴다. 이들은 특히 월남하여 가족이 없이 홀로 생존을 꾸려가야 한다는 점에서 겹으로 힘겨운 처지에 있다. 여기서 찬우는 백인 여성이 자신을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런 피부를 가진 코리언에게 추파를 던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커널의 오해를 받아야 하고, 김순배는 “한국 대학생들의 꿈은 미국 이민”이며, 흑인 여성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는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고, 여성인 나는 자민족 남성에게 성적 희롱을 당한다는 미국인의 오해를 산다. 이처럼 남성이든 여성이든 월남민으로서 민족 내에서 타자의 위치, 외인촌이라

18) 김윤선은 이 작품이 해방 직전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지만 민족과 국가에 귀속될 수 없는 여성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4.19 이후 1960년대 한국 사회를 반영한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김윤선, 앞의 논문, 244쪽.

는 (후기)식민적 장소에서 식민자로서의 타자의 위치, 나의 경우 성적으로 타자의 위치에 있는 이중, 삼중의 위계질서가 교차하는 상황을 작가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특히 굴종적이거나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순배나 찬옥에 비해 현실을 훨씬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여성 인물이다. “사면팔방을 두들겨 보아도 탈출구가 없다고는 나는 한사코 생각지 않을 테다. 김순배나 내가 절망해서 무기력해지는 날, 우리들 주위를 보라. 무기력해진다는 것은 무감각해진다는 일이다. 체이고 두들겨 맞고도 아픈 줄 모르는 일, 미국에나 본적을 옮기고 싶어하는 그런 천박한 짓을 아, 아, 키나 커가지고 잘난 줄 아는 저 백인 녀석들을 한국의 대학생들이 부러워할 줄 알면 어림도 없지.”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나는 같은 세대 남성들의 무기력함과 미국(인)의 우월감에 대해 동시에 비판적이다. (후기)식민적 상황이 민족 외부(미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민족 내부에서도 무능력한 남성적 질서에서 기인한 것임을 지식인 여성 특유의 민감성과 지성으로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월남 지식인 여성의 성장 서사는 「임금의 귀」로 마무리된다. 주인공 명화에게 ‘임금의 귀’를 폭로하기란 교사 생활에서 경험했던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제도적 권력이나 이혼한 전 남편의 속물성 같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물질숭배 풍조에 대해 작가의 목소리로 비판하기이다.

자기가 쓴 작품의 하나 하나는 그런대로 무엇인가를 말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한데 모여서는 어디를 가자는 것인지, 아니 넓은 시야를 의식한 나머지 남의 지성과 남의 자세를 빌려온 일은 없었던지 그리고도 더 깊이 생각해 볼 때, 자기에게 세계를 수놓을 지성이나 분명 앞을 향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었다면 자기는 이미 죽어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이었다.”  
(405쪽)

명화는 “안목이나 물질만 갖고 처세하”면서 미국을 동경하는 남편 원

철의 속물성에 혐오감을 느낀 나머지 이혼을 감행한다. 제대로 된 작품을 쓰기 위해 교사를 그만 두기도 한다. 그렇지만 명화는 행동형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의 지성과 남의 자세를 빌려온 일은 없었던지” 반성과 성찰을 거듭하면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소설세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사색형 인물이다. 결말에서 “명화는 작가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렇다면……세상을 사는 동안, 임금의 귀는 당나귀 귀. 하고 외치는 작업으로 서나마 자기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라고 결심하는 것은 폐쇄적인 세계, 남의 지성을 모방하는 세계가 아닌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것으로 자신의 작가적 정체성을 규정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작품군은 구세대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비판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이다. 구혜영의 『은 빛깔의 작은 새』(1968.6),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1960.1), 『황량한 날의 동화』(1962.11), 『강물이 있는 풍경』(1965.12)은 위 작품군과는 달리 당대 현실과의 응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가부장적 남성 질서에 대한 비판을 ‘낭만적 사랑’(혹은 ‘낭만적 사랑’의 좌절)과 여성 욕망의 드러냄이라는 숨겨진 구도로 서사화한다.

구혜영의 『은 빛깔의 작은 새』에서 ‘은 빛깔의 작은 새’라는 환영은 낭만적 사랑과 육체적 욕망의 결합을 꿈꾸는 주인공 정요를 가리킨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은 물론 상대방 여성의 성적 자유에 방임적이다. 하지만 그런 태도가 서구식 자유주의를 용인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남편에게 결혼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다는 확인 절차일 뿐이고, 성적 방임 내지 자유는 “정요까지를 합해 남의 욕망 따위는 일체 인정치 않는”, 변형된 남성성을 위장하려는 알리바이이다. 그런 점에서 정요의 남편은 돈과 권력을 권 부르주아 남성의 반(反)지성, 전후에 재건된 가부장적 상징 질서의 비윤리성을 대변한다. 그런데 정요는 앞서 작품군의 여성-청춘들처럼 자신을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석하되, 이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다. “사랑에는 반드시 욕정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는 정요는 이를 부정/거부하는 남편을

떠나기 위해 운전기사인 김과 성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그녀는 열락의 경험 후에 “자기 몸속에 웅크리고 앉은 그 은 빛깔의 새에는 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육체적 욕망은 성취했으나 거기에는 낭만적 사랑이랄지 정서적 교감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예지의 광휘 없이 열락만 충동적으로 욕구하고 나대는 눈먼 조그만 은 빛깔의 작은 새”(299쪽)였음을 깨닫는다. 남성적 질서로부터 일탈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지성이나 현실 개입이 아닌 육체적 욕망 추구로 나타날 때 그 일탈과 저항은 부르주아 남성의 방식을 ‘여성적으로’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정요의 깨달음이 부르주아 여성의 낭만적 사랑과 그것이 완결된 형식으로서의 스위트홈에 대한 판타지가 깨진<sup>19)</sup> 데 기인하는지, 아니면 전후에 재건된 근대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승인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둘 다일수도 있다. 다만 앞서 여성-청춘의 서사에 등장했던 여성들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 들어갔을 때, 더욱이 부르주아 핵가족 질서의 틀 안에 들어갔을 때, 현실에 대한 민감성과 지적 관찰 내지 해부를 겸비하지 않는다면 애초의 비판의식을 잃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강신재의 『황량한 날의 동화』는 강한 남성(성)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윤리적으로 허약한 남성(성)과 이 남성(남편)을 연민이 아닌 분석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여성(성)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 청춘의 완벽한 ‘낭만적 사랑’에 대한 환상이 결혼제도로 인해 어떻게 ‘낭만적 사랑’과 그것의 완성인 ‘결혼’에 대한 환멸로 끝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완전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믿었던 현수는 결혼 후 아편중독자로, 아내인 명순을 가정의 생계부양자로 내모는 무능력한 남편으로 바뀐다.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인지 명순은 지금 한마디로 규정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섹스가 일으키는 트라블이고, 일종의 하찮은 시정(詩情)이었다. 모든 시가 그러하듯이 그것은 과장을 일삼고, 우상을 만들기예 옆눈도 안 판다. ‘완전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다.”(47쪽) 명순은 결혼 후

19) 안미영, 앞의 논문, 448쪽.

낭만적 사랑이 생물학적 현상이자 “하찮은 시정”에 불과했음을 알게 되지만 이혼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이 아닌 ‘동화’를 선택한 자신의 주체적 결단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대신에 명순은 앞의 정요와 유사하게 자기 안의 성적 욕망을 가족제도 바깥에서 표출한다. 한수가 아편중독 상태에 있는 동안 명순의 육체를 잊고 말았기에 그녀는 수영을 하면서 “바닷물에서 오는 전신적인 압박에서 흘깃 남편의 애무를 감각”한다. 남성의 육체, 성적 쾌락을 바닷물에서 느끼는 감각으로 대체하는 것은 소위 정신적, 육체적으로 무능력한 남성성에 대한 비판과 복수,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명순이 아편중독자가 되어 형해와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현수를 거두지만, 아편중독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소설 결말에서처럼 현수의 죽음을 방기하는 것은 ‘낭만적 사랑’의 허구성에 내부에서 균열을 내려는 의도로 볼 여지가 있다. 명순의 심리는 한수의 죽음을 상상/공상하는 다음 예문에서도 알 수 있다.

한수가 죽어 버리고 그의 옆에 노오트가 펼쳐져 있다면 노오트에는 흘림 글씨로 몇 자 적혀 있을 것이다. “정신이 맑은 새에 결행하겠다. 당신을 사랑한 증거라고 알아 준다면 다행이다……” 사랑?

그것은 얼마간 우스운 말이기는 하였지만 나쁜 말은 아니었다. 동화를 읽고난 어른처럼 그녀는 미소했다.(52쪽)

이제 ‘사랑’은 ‘우스운 말’이거나 ‘동화’, 즉 현실에 눈 뜬 어른에게는 불필요한 감정이자 이야기가 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전후 근대화 프로젝트에서 낙오된 남성들의 ‘낭만적 사랑’ 각본이 현실적이고 주변 상황과 자신을 냉철히 분석하는 여성에게는 비판과 냉소의 대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는 감각적 표현, 낭만적 사랑이라는 낯익은 여성소설의 소재를 이복 남매 간의 사랑이라는 파격적 소재로 낯설게 하

기 등으로 인해 1960년대 여성적 글쓰기의 특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 작품은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와 같은 첫 구절에서부터 이복오빠이자 사랑의 대상인 남성을 미적 혹은 감각적 욕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목<sup>20)</sup>에 이르기까지 사춘기 젊은 여성의 감성과 욕망을 전경화한다. 이 점에서 『사상계』에 수록된 구혜영이나 박순녀, 박경리와 같은 비슷한 시기에 등단한 여성작가들의 작품세계와도 다른 독특한 감성구조를 보여준다. 가령 박순녀의 소설이 ‘민족’이나 ‘탈식민’을, 구혜영의 소설이 넓은 의미에서의 계몽성을 지향했던 데 반해, 강신재의 소설은 부르주아 지식인 여성의 자의식이나 감수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전후 식민화된 현실이나 가부장적 남성 질서에 대한 직접적 비판보다는 이를 이복 남매의 사랑이라는 대중적 흥미를 자아내는 소재 이면에 감추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몇몇 선행연구가 주목한 바와 같이 『젊은 느티나무』는 그 이면에 전후 무력해진 가부장적 상징질서에 대한 비판을 내장하고 있다.<sup>21)</sup> 나는 그-현규를 오빠라 부르지 않고, 엄마와 그와의 관계도 ‘인공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원 아버지가 전후 실종된 후 엄마가 ‘무슈 리’와 재혼하면서 성립된 가족을 나는 ‘인공가족’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원 아버지, 엄마와 재혼한 새 아버지 양 쪽에 다 무관심한 듯한 포즈를 취한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질서는 엄마의 불행을 가져오거나, 나와 현규의 사랑을 가로막는 형식뿐인 틀이기

20) 가령 다음과 같은 구절을 들 수 있다. “까무래한 피부와 꽤 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나는 참 좋아진다.”, “그의 머리통은 아폴로의 그것처럼 모양이 좋다.”, “그가 마시다 둔 코오크의 잔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입술을 대었다. 아까 그가, 내가 마신 표주박에 입술을 대었듯이……”

21) 송인화는 강신재 소설이 부르주아 가족제도와 윤리를 벗어난 금기의 사랑을 주로 다루고 있음에 주목했다. 『젊은 느티나무』 역시 “아버지의 법을 위반한 금기의 사랑을 통해 가정과 가족의 경계, 그것을 지탱하는 성윤리에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김미현 역시 “여성주체가 상징적 아버지를 거부하려는 전복적 성장을 추구”한다고 보고 있다.

송인화,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19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139-140쪽; 김미현, 『강신재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국제어문』 28호, 국제어문학회, 2003, 222쪽.

때문이다. 친아버지에 대해 “나는 내 부친에 관해서 아무런 지식도 관심도 감정도 갖고 있지 않다. ‘윤’이라는 내 성이 그로부터 물려받은 유일의 것이지만 흔한 성이라고 느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또 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불란서 영화에서 본 한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무슈 리’로 부르거나 그를 좋아하지만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다. ‘무슈 리’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인공가족이 부여한 ‘오누이’라는 형식을 부정해야만 현규와 내가 “순전한 타인”이고, 언제든지 낭만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젊은 남성과 여성으로 재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설 말미에 보면 엄마마저 무슈 리를 따라 미국에 가기로 결정하면서 이 부르주아 가족은 가족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각 개체가 온전히 자신의 개성이나 욕망을 추구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이복 남매의 사랑이라는 대중적 흥미를 자아내는 소재를 차용하여 전후 부상한 부르주아 가정과 근대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역시 구세대의 질서임을 암시하는 한편, ‘젊은 느티나무’로 상징되는 자유와 개체의 욕망을 새로운 질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느티나무』, 『황량한 날의 동화』와 같은 『사상계』 수록 강신재의 작품은 낭만적 사랑의 추구하고 좌절이라는 낯익은 형식을 빌려 와서 전후 국가나 가족이라는 상징적 질서 및 이념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여성-청춘의 자의식이나 욕망을 추구하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강신재의 작품 경향은 ‘낭만성’, ‘대중성’, ‘일탈’, ‘전복성’이라는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주요 경향을 예비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5. 결론-여성문학 장의 변화와 『사상계』

1955년 7월 ‘사상계 신인상’ 선후평에서는 구혜영의 『안개는 거치고』와 박종인의 『물망초』를 두고, 『안개는 거치고』가 지성적인 인물을 교묘하게 교착시키면서도 오히려 단일화의 효과를 충분히 낸 데 반해 『물망초』는 시뻘건 혈족의 피 우에 서린 애련한 소녀의 센터멘털리즘이 구사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여성작가들의 작품은 ‘지성’과 ‘감성(센터멘털리즘)’ 사이에 놓인 것으로 곧잘 담론화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작가들의 작품을 ‘심경소설’과 같은 내면성을 지향하는 것으로 묶는 경우도 종종 눈에 띈다.<sup>22)</sup>

하지만 이와 같은 기존문학 장의 평가는 역설적으로 『사상계』 신진여성작가들이 독자적인 세계를 구현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앞서 작품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전후 남한 사회의 난맥상이나 (후기) 식민적 상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무능력하거나 부재한 남성 대 자기 목소리와 시선으로 현실을 비판하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여성이라는 구도로 나타난다. 이 점은 포스트 최정희 세대 여성작가들, 특히 『사상계』에 포진한 여성작가들의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신진여성작가들의 독자성 내지 새로움이 남성작가들과는 ‘다른’ 지식이나 문학적 경향을 생산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하기 힘들다. 세계성과 민족성을 동시에 상상

22) 이어령은 『길에 도표가 없다』(1959.6) ‘심경소설의 변용’이라는 장에서 강신재, 한무숙, 박경리의 작품을 함께 논하면서 특히 박경리의 『표류도』를 심경소설의 심화로 파악하였다. 최일수는 『한계상황의 인간-창작평』(1959.8)에서 20대의 젊은 작가들을 “어느 시대의 작가들보다도 한결 관념의 도가니에 빠져들어 갔으며 현실 보다는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줄달음쳐 들어간 극대감각(極大感覺)”을 지닌 것으로, 반면 4, 50대 작가들을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상에 기울인 나머지 극소감각(極少感覺)”지닌 것으로 나눈다. 여성작가로는 한말숙, 구혜영, 정연희의 작품들이 극대감각을 더듬고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극대감각’은 내면성이나 심리추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후 신진여성작가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적하는 것이 눈에 띈다. 다시 말해 여성성과 내면성을 동일한 자질로 파악하는 것은 1950년대 후반 문학 담론 장이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을 범주화하면서 모종의 합의에 도달한 징후로 볼 수 있다.



했던, 전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철학, 역사, 정치 등 여러 부면의 지식들을 참고하여 돌파하려 했던 『사상계』의 어찌 보면 거대한 프로젝트에 비할 때 여성작가들의 작품, 여성 관련 담론은 독자적인 지식과 교양을 주도적으로 생산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작가들의 부상, 남성과는 이질적인 방식으로 전후 사회를 재현하거나 비판하기 등이 전후 문학 장과 지식 담론 장의 다양한 경향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사상계』는 195·60년대 현대문학의 특징을 확정짓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세대론, 민족문학론, 참여-순수 논쟁 등 많은 문학 논쟁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논쟁의 주체가 되는 신진작가들과 신진평론가들을 다수 배출함으로써 해당 시기 문학 장의 중심이 되었다. 반면에 ‘여성’ 관련 문학 담론은 빈약한 ‘비’젠더적 매체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잡지가 문단의 ‘새로운’ 세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문학 장에 진입하는 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사상계』는 자발적이건, 비자발적이건 새로운 문학의 영토를 개척한 여성작가들을 포용할 수밖에 없었고, 여성작가들 역시 이 잡지를 통해 글쓰기 주체로서의 욕망을 인정받았고, 여성문학 장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물론 이와 같은 평가는 동시대 여성잡지나 다른 문예지에 실린 작품들과의 비교, 같은 작가의 작품세계 전반에 대한 조망 등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추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겠다.

## 참고문헌

- 김건우,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소명출판, 2003.
- 김미현, 「강신재의 여성성장소설 연구」, 『국제어문』 28호, 국제어문학회, 2003.
- 김복순, 「전향자의 역사 다시 쓰기-최정희의 『인간사』론」, 『여성문학연구』 24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 김양선, 「지적 해부와 민감성 사이, 전후 현실에 대한 젠더화된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47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1.
- 김윤선, 「월남 여성작가 박순녀의 체험과 문학」, 『한국학연구』 33집, 한국학 연구소, 2010.
- 송인화, 「강신재 소설의 여성성과 윤리성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19호,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6.
- 안미영, 「계몽성과 감성이 착종된 세대의 의의와 한계」, 『국어국문학』 150호, 국어국문학회, 2008.
- 이선미, 「1960년대 여성지식인의 자유 담론과 미국: 박순녀, 손장순, 박시정」, 『현대문학의 연구』 29호, 현대문학연구학회, 2006.
- 정혜경, 「『사상계』 등단 신인여성작가 소설에 나타난 청년 표상」, 『우리어 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2011.

## Abstract

### The Placement of Woman-Literature in 195·60's

-focusing on the criticism and women writers' novels in 『Sasanggye』-

Kim Yangsun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placement of woman-literature in 195·60's which is focused on 『Sasanggye』. The reason why 『Sasanggye』 becomes the object of my study can be classified with two categories. First, 『Sasanggye』 dealt with 'literature' as the mediation of participation in the reality and the context of the production of intellectual and culture in 195·60's, and then it is assumed that this characteristics effected on the women's works. Second, it is likely that 『Sasanggye』 led to the shift of generation in women writers and their own literary field, while producing the new generation's literature. For confirming this assumption, this paper reviewed the criticism about women's literary works as well as the bibliography and analysis about women's literary works.

In chapter2 'the project of literature in 『Sasanggye』', focusing on the preface, the publication of literary supplement, literary symposium, 『Sasanggye』 tried to make the independent literary field which is different from the another, anti-ideological literary field at that time.

In chapter3 'how 『Sasanggye』 arranged or placed the women's literature', this magazine used the critical words like sensitivity, delicacy, introspectiveness, when dealt with the women's works in monthly review or brief comment. That is, these criticisms

differentiated women's works from men's works. And these critical discourses paid attention to the emergence of new generation in 1950 · 60s.

In chapter4, 'the figure of young woman and young generation's differentiation from old world', the three characteristics in women writer's novels was suggested. These novels' main characters were usually young women. The young women looked at Korean society after Korean war or 4.19 critically and pessimistically. And the new paradigms like the modernity project, longing for liberty, post-colonialism was presented in women's point of view.

First, their novels criticized the young man's narrative which was focused on the anxiety, melancholy, and tame-ness, and made them awakened. Second, the young women criticized the patriarchal system and oppression by old generation, and showed their own wills to the liberty and independent life. Third, the married/unmarried women who lived on the unstable intellectual background tried to deny the romantic love and ordinary marriage system, so that caused the crack about the patriarchy.

In conclusion, 『Sasanggye』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literary field in 1950 · 60's, but it was the 'anti'-gendered media because of poverty of female literary discourse. However, it is true that this magazine helped 'women' writers entered the literary field while seeking the new generation. 『Sasanggye』 included new women writers inevitably, and the women writers were also allowed as the writer-subject, so that could lead the change in women's literary field.

Key words : 『Sasanggye』, woman-literature, ideology, criticism about real world, new woman writer, young woman, women's literary field

- 본 논문은 4월 30일에 접수되어 5월 8일부터 2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28일에 게재 확정되었음.

